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어떤 이유로 이 책을 읽게 되었나요?

친구가 추천을 해줘서 읽은 책입니다.

요즘 경제 서적 쪽에서는 좀 핫하다고 해서 후딱 읽었습니다.

내용 자체는 상당히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다른 회원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에서 좋았던 구절을 적어주세요,
그 구절이 좋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나요?**

20세기까지 인플레이션은 통화량의 확장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중략) 현 차원에서 통용되는 물가 인상과 인플레이션을 동일시 하는 견해는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관철한 것이다. (중략) 인플레이션을 물가 상승으로 명명하는 것은 어떤 질병의 증상과 그 질병을 유발한 원인을 서로 혼동하는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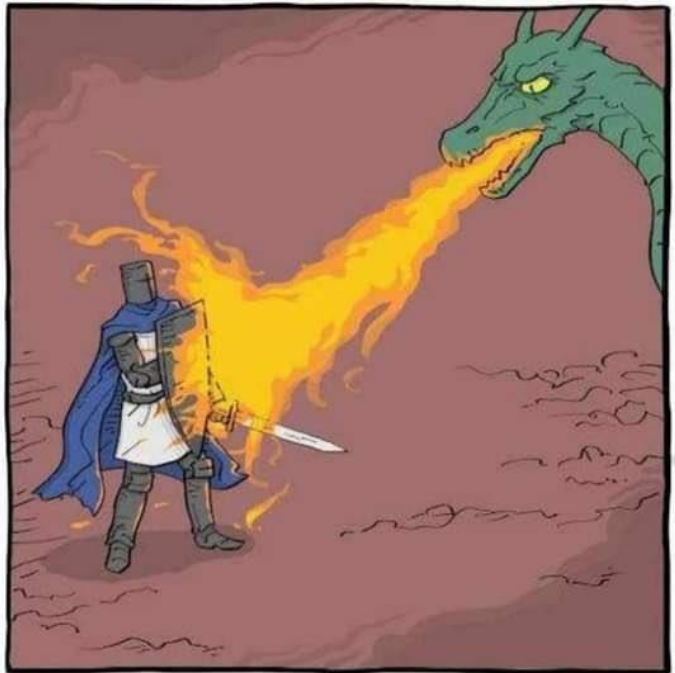
종속성을 창출하는 자는 권력을 획득할 수 있다. 종속된 사람들에 대한 권력 말이다. 이것이 현재 화폐 시스템이 돌아가는 방식이다. 국가의 돈이 더 이상 풀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람들의 불안감이 국가와 정부, 그 밖의 정치권력자들을 지금 그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 앉힌다.

책을 다 읽고 나서 감상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오스트리안 국민경제 학파의 주장에 대한 입문서로 최근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화폐 남발에 대한 좋은 견해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케인즈식 경제학에 익숙한 경향이 있는데, 다른 관점에서 같은 현상을 보면서 좀 더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드래곤이여 너를 무찌르고 금은보화를 가져가겠다!



드디어 드래곤을 무찔렀다. 이제 금은 나의 차지다!



젠장 이게 뭐야? 보물은 어디갔어?

이건 탈곡기야. 인간의 노동을 최소화하며 곡식의 낱알을 분리하는 기계야.



나라의 부는 금이나 돈에서 오는것이 아니라 생산 역량에서 나와.



생각해봐. 네가 이 세상의 금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어. 오히려 금의 가치가 떨어지겠지. 네가 필요한 건 인간의 노동력을 해방해서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야.



원한다면 목화솜에서 씨앗을 분리하는 면직기도 있어. 거지갈네. 공주한테 이딴 걸 가지고 갈 순 없어. 찌따 드래곤 새끼 같으니